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개인적 특성 및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이 기 학 한 종 철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고등학생들의 개인적 특성 및 심리적 변인에 의한 진로태도성숙 정도를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인문계 및 실업계 남녀 7개교의 2007명을 대상으로 개인적 변인—성별, 계열별, 학년별— 및 심리적 변인—자아존중감, 직업가치, 내외통제성—과 진로태도성숙구인—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진로태도성숙 정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진로태도성숙을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본 연구에서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목적성과 준비성에서는 여학생이, 반면에 확신성과 독립성에서는 남학생이 높은 진로태도성숙 정도를 보였다. 계열별에서는 이전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인문계 학생이 실업계 학생보다 높은 진로태도성숙 정도를 보였고, 고등학교 내에서는 학년에 의한 진로태도성숙의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한편,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높은 진로태도성숙 점수를 보였다. 또한, 직업가치를 외적인 경제적 보상보다는 성취감이나 대인관계와 같은 내적 가치에 둘수록 높은 진로태도성숙 점수를 보였으며, 내적 통제성이 높은 학생이 더 높은 진로태도성숙 점수를 보였다.

연구목적 및 필요성

진로란 개인의 전생애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것으로, 개인의 태도, 가치관, 그리고 기대감을

포함한 일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Storey, 1979). 이러한 일련의 직업-관련 활동은 어느 한 순간에 일어나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발달적 측면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Van Maanen과 Schein(1977)은 개인이 진로를 학습하는 과정은 바로 변화 그 자체를 학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진로는 객관적이고 외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직업-관련 활동과 더불어 개인의 태도, 가치관과 같은 개인의 내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진로발달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이 진로성숙이다. 진로성숙은 전생애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직업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개인의 준비와 대처행동을 나타내는 것이다(Srebalus, Marinelli, & Messing, 1982; Rojewski, 1994). 이런 진로성숙 구인은 현실적인 진로 선택에 필요한 인지적 기술과 직업 세계에 참여하고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개인의 감정, 주관적 반응, 기질 등을 나타내는 정서적 측면인 진로태도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Crites, 1978b; Fouad & Keely, 1992; Manuele, 1983). 또한, Crites(1978b)의 진로발달이론에서도 진로성숙의 구인을 직업선택에 대한 능력 요인과 직업선택에 대한 태도요인의 두 가지 요소로 제시하였다. 이 중 태도요인의 하위 요소는 개입성, 방향성, 독립성, 선호성, 그리고 선택과정의 개념의 다섯 가지로서, 개인이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정의적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 나라 청소년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민하는 내용 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측면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나라 고등학생들은 주로 진로선택과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진로선택에 필요한 정보수집과

준비와 관련된 차원, 그리고 진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자신과 주위사람들과의 판단 사이에서의 갈등과 관련된 차원이 그 다음으로 많이 보고되었다. 또한, 현실적인 문제와 선택한 진로에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확신 정도를 나타내는 내용이 중요한 측면으로 나타났다(이기학, 1997). 따라서,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와 관련된 차원으로는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고성 여부의 태도를 나타내는 결정성 차원, 진로 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준비와 관심 정도를 나타내는 준비성 차원, 자신의 진로문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타인에 의존하여 결정하는가의 태도를 알아보는 독립성 차원, 개인이 직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지향성을 나타내는 목적성 차원, 그리고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한 믿음과 성공 가능성을 나타내는 확신성 차원을 들 수 있다(이기학, 한종철, 1997).

청소년기는 학교장면에서 일의 세계로 옮겨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로서,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적절한 진로선택을 위한 탐색의 시기이다. 개인이 어떤 하나의 직업을 선택하고 일의 세계에 참여한다는 것은 개인의 일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다(Harré & Lamb, 1983). 따라서, 최초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어떤 진로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개인의 진로 방향성을 파악하고, 또한 특정집단의 진로태도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자신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수록, 앞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에서 만족한 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은 더욱 커져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진로태도성숙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변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전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자신에 대한 자아감을 나타내는 자아존중감(김현옥, 1989; Gati, Krausz, & Osipow, 1996; Taylor & Betz, 1983), 개인이 직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직업가치(이기학, 1992; Phyllis Post-Kammer, 1987; Zunker, 1986), 그리고 사건 및 행동의 원인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내적인 자신에게 귀인하는지 아니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적인 문제로 지각하는지를 나타내는 내외통제성 정도(김현옥, 1989; 정채기, 1988; Ralph, 1986)에 따라 진로태도성숙도가 달리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고등학생들의 진로태도에 심리적 변인 및 개인적 특성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 나라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진로에 대한 태도와 성숙수준을 평가하고, 심리적 변인이 진로태도성숙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 나라 고등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 수준을 평가한다.
 - 1) 성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정도의 차이를 검증한다.
 - 2) 계열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정도의 차이를 검증한다.
 - 3) 학년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정도의 차이를 검증한다.
2. 우리 나라 고등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를 측정한다.

- 1) 자아존중감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를 검증한다.
- 2) 직업가치와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를 검증한다.
- 3) 내외통제성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를 검증한다.
- 4) 진로태도성숙 정도에 대한 심리적 변인들의 관계분석을 통한 예언 정도를 측정한다.

이론적 고찰

A.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1. 성차이와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Ginzberg, Ginsburg, Axelrad와 Herma (1951)와 Super(1957)에 의해 여성에 대한 진로발달 연구가 제기되면서 남녀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시작하였다. Ginzberg 등(1951)의 직업태도파라다임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직업태도 수준을 고려하는 데 있어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학생의 경우는 직업태도에 있어 직업에 대한 가치가 지배적인 기초가 되는 반면에, 남학생은 흥미가 직업태도의 주요관심사항이 되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직업적으로 성숙되어 있다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있다(Leso & Nemeyer, 1991; Parr & Nemeyer, 1994).

또한 Crites의 진로성숙도검사(CMI)를 사용하여 우리 나라 중·고등학교 남녀 학생에 대한 진로성숙 정도를 살펴본 이기학(1992)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성숙 수준이 높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다(Larson, Butler, Wilson, Medora, & Allgood, 1994; London & Greller, 1991; Luzzo, 1995; Watson & Van Aarde, 1986).

2. 인문 및 실업계열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가정환경 뿐만 아니라 학교가 사회화와 직업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Crites, 1961). 학교는 학생들의 진로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일 뿐 만 아니라 진로태도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한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접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얻게 된 다양한 진로 정보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많은 의사결정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그런 의사결정은 대부분 자신이 갖게 될 미래의 직업과 관계가 있다(Pavliak, 1981).

Jordaan과 Heyde(1979)는 비록 학생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교과과정 선택이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사전 직업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교과과정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정도에서의 차이 여부를 조사한 연구들에 의하면, 직업과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학생(실업계 고등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인문계 고등학생)보다 진로태도에서 낮은 성숙 정도를 보인다(이기학, 1992; Fitzgerald & Betz, 1994; Pavliak, 1981).

발달이론가들이 주장하는 진로성숙은 학교 교육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결정태도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인 고등학교 시절에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진로태도라는 것은 현실적

이고 체계적인 것보다는 다소 환상적이고 비체계적인 특징을 보인다(Lopez & Andrews, 1987). 실업계 학생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자신이 획득한 직업 기술을 토대로 한 가능한 수준의 진로를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태도를 갖기보다는 상급학교의 진학을 통해 궁극적으로 좀더 전문적인 높은 직무수준을 갖고자 하는 바램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진로불만족을 갖게 되고 인문계 학생에 비하여 낮은 진로태도성숙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Lopez & Andrews, 1987). 이러한 현상은 우리 나라의 교육 현실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학생들 스스로 한정된 진학과 취업 상황에서 고학력과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 직업을 갖는 것이 사회적 성취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정채기, 1988).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은 직업적 성취 기회가 부족한 실업계 학생들은 인문계 학생에 비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불만족을 갖게 되고 또한 낮은 진로태도성숙 수준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자아개념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진로태도에 대한 발달이론가들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는 자아개념과 진로태도성숙을 들 수 있다. 이들 이론에서는 일반적인 자아개념이 직업적 자아개념으로 전환되어 진로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진로태도성숙과 자아개념은 정적인 상관관을 보인다는 기본가정을 가지고 있다(김현옥, 1989; Helbing, 1978).

진로태도를 전생애 관점에서 살펴본 Super(1983)에 의하면, 인간의 발달과정은 자신의 자아개념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개인의 진로발달은 자

아개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진로발달과정이란 본질적으로 자아개념을 발달시키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개인이 유전적으로 타고난 성격적 적성, 신체적 능력,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역할수행의 결과로 주위사람으로부터의 인정에 대한 개인적 평가에 의해 자아개념이 형성되고 이런 자아개념의 발달에 의해 개인의 진로가 발달되는 것이다(정순이, 1989). 또한 개인이 자신에게 갖는 자아감과 진로성숙 간에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있다(Cati, Krausz, & Osipow, 1996; Oppenheimer, 1966; Taylor & Betz, 1983).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남녀 중·고등학생 1613명(여자 812명, 남자 801명)을 대상으로 1989년에 수행된 김현옥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듯이, 진로성숙과 자아개념 사이에 .47 이상의 정적인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4. 직업가치와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직업가치가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다(Ben-Shem & Avi-Itzhak, 1991; Phyllis Post-Kammer, 1987; Wallas & Gulkus, 1974; Zunker, 1986). 직업에 대한 가치를 내적인 가치(성취감, 창의성, 지적 자극 등)에 두고 있는 사람이 외적인 가치(동료관계, 경제적 보상, 안정성, 작업환경 등)에 두고 있는 사람보다 더 높은 진로태도성숙 수준을 보인다(이기학, 1992; Gade & Peterson, 1977; Pavlak, 1981).

Super(1957)의 진로선택과정 중 탐색기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진로태도성숙과 관계하여 병렬적으로 변화·발달하는 요

인이 직업에 대한 가치이다. 즉,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과정 중의 하나가 직업가치에 대한 명료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직업가치와 진로태도성숙도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Zunker, 1986).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진로태도가 더 성숙할수록 직업에 대한 가치가 외적 가치에서 내적 가치로 변화된다.

Wagman(1965)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직업가치 연구에서 두 집단 사이에 연령과 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고등학교 남학생집단이 안정성과 독립성의 직업가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에, 남자 대학생집단은 지도력, 흥미있는 경험, 자아감의 직업 가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고등학교 여학생 집단이 안정성과 독립성의 직업 가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에, 여자 대학생집단은 흥미 있는 경험의 직업가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5. 내외통제성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내외통제성과 진로태도성숙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Osipow, Carney와 Barak(1976)은 개인이 자신의 책임을 수용하는 정도가 진로선택을 예언하는 중요 지표라고 주장하면서, Rotter의 내외통제적 신념이론을 진로성숙에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김현옥, 1989). Rotter(1966)은 개인이 갖는 강화에 대한 기대가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행동의 결과에 대한 지각이 자신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경향성을 내적 통제성으로 보고 있으며, 반면에 행동 및 사건의 결과를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것으로 보거나 우연에 의해 이루어진 환경적 사건으로 귀인

하는 경향성을 외적 통제성으로 보고 있다(정채기, 1988). 정채기(1988)는 내외통제성을 개인이 자신의 행동원인을 환경적 요인으로 지각하는가 혹은 개인 내적인 요인으로 지각하는가를 나타내는 귀인적 특성으로 정의하면서, 내외통제성 유형이 진로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내적 통제성을 보이는 사람이 진로태도에 있어 독립적인 반면에, 외적 통제성을 보이는 사람은 진로를 선택하는 태도에 있어 의존적이고 직관적인 유형을 보이기 때문에 내적 통제성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진로태도성숙 정도를 보인다(Locan, Boss, & Patsula, 1982; Ralph, 1986). 또한 진로 결정에 대한 귀인을 내적으로 하는 학생일수록 진로결정이 더 잘 이루어져 있으며, 외적으로 귀인 할수록 진로에 대한 미결정의 특성이 높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다(정채기, 1988; Gati, Krausz, & Osipow, 1996).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남녀 1, 2, 3학년 학생 2007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였다. 계열별과 성별에 따라 각각의 경우에 2개 학교

씩 총 7개교(인문계 J고교의 경우는 남녀 공학의 동일학교 선정)를 선정해 각각의 학교에서 학년 당 2개 학급씩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문계 남학생은 일산과 서울의 강북에 소재한 J고교와 D고교 등 2개 학교를 선정하였으며, 인문계 여학생은 일산과 성남에 소재한 J고교와 S여고 등 2개 학교를 선정하였다. 실업계 남학생은 서울 강북과 성남에 소재한 D상고와 S상고 등 2개 학교를 선정하였으며, 실업계 여학생의 경우에는 인천에 소재한 Y여상과 I여상 등 2개 학교를 선정하였다. 이들 조사대상자의 분포 현황을 표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2. 검사도구

1) 진로태도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이기학과 한종철(1997)이 개발한 진로태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진로태도 측정도구는 5개의 하위 요인의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다섯 가지 하위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정성 차원으로서,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고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자신이 갖고자 하는 진로 및 직업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차원이다. 둘째, 진로

〈표 1〉 조사대상자의 분포 현황

단위: 명

구분	전체	계			인문계			실업계		
		1년	2년	3년	1년	2년	3년	1년	2년	3년
남자	861	326	409	126	185	169	126	141	240	
여자	1146	396	403	347	204	210	145	192	193	202
전체	2007	722	812	473	389	379	271	333	433	202

결정에 필요한 사전이해와 준비 정도, 그리고 진로에 대한 관심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진로정보 수집 능력을 나타내는 준비성 차원이다. 셋째, 독립성 차원이다. 자신의 진로문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타인에게 의존하여 결정하는가를 나타내는 차원이다. 넷째, 목적성 차원이다. 개인이 직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지향성에 대한 것으로, 사회·경제적 욕구보다는 자아실현, 사회적 봉사, 대인관계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더 추구하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차원이다. 마지막으로 확신성 차원이다. 이 차원은 진로선택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앞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인적 믿음과 확신 정도를 나타내는 차원이다.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신뢰도를 산출하였다. 고등학생 2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섯 가지 하위 요인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계수는 결정성 .88, 목적성 .75, 확신성 .75, 준비성 .76, 독립성 .75이다. 또한, 성별과 계열별에 따른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인문계 남자의 경우에는 .74-.88의 범위를 보이며, 인문계 여자는 .78-.90, 실업계 남자는 .65-.85, 실업계 여자는 .71-.87의 범위를 보인다.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타당도는 내용타당도와 구인타당도에 의해 산출되었다(이기학, 한종철, 1997). 한편, 하위요인들간의 요인 구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내용 영역간의 상관계수는 전체 진로태도와 하위 요인들간의

상관은 준비성 .56, 목적성 .60, 확신성 .67, 독립성 .68, 결정성 .81의 수준을 보이며, 하위요인들간의 상관은 .17-.41의 범위를 보인다.

2.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Fitts(1965)가 개발한 자아개념검사(Tennessee Self Concept Scale)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정원식(1968)이 번안한 5점 척도의 90문항으로 구성된 자아개념검사를 사용하였다. 정원식의 자아개념검사는 개인이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자신과 주위 환경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검사로서, 상담과정에서 내담자들이 자아에 대해 주로 고민하고 진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정원식, 1994). 자아개념검사는 5개 하위영역—신체적 자아, 도덕적 자아, 성격적 자아, 가정적 자아, 사회적 자아—의 90문항과 10개의 허구척도문항 등 총 10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아개념검사의 신뢰도는 60명의 고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2주 간격으로 재검사신뢰도계수를 산출하였는데, 그 범위는 신체적 자아는 .75이며, 그 외의 4개의 하위영역은 .81에서 .88까지의 범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김현옥(1989)이 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계수는 .66에서 .73까지이다. 한편 타당도는 임상심리학자들에 의한 내용타당도를 산출하였으며, 각각의 하위요인들 간의 단순상관계수는 .35-.66의 범위를 보이고 있다. 중·고등학생과 남녀에 따른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백분위점수와 표준점수를 산출하였다.

3. 직업가치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직업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Kilpatrick(1968)이 개발한 직업가치척도(Occupational Value Scale)를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직업가치척도는 총 30문항 — 외적 가치(7문항), 내적 가치(16문항), 일반적 가치(7문항) — 으로 구성된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Kilpatrick의 직업가치척도의 하위 영역 중 일반적 가치영역 7문항을 제외한 내적 가치와 외적 가치영역의 23문항을 사용하여, 배리맥스 회전방식으로 주축요인분해를 통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초구조의 추출을

위해 단일 주축분해법을 우선적으로 실시한 결과 요인분석의 고유치가 1.00 이상으로 나타난 요인의 수가 5개였으며, 이들 요인의 누적분산비율을 살펴보면 요인 2개를 취했을 때의 누적분산비율이 이미 100%를 전부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2개의 요인을 설정하여 주축분해를 하였다(이순목, 1995). 이때 각 요인별로 요인부하량이 .30 미만인 문항을 제거하여 7점 척도의 내적 직업가치 요인 11문항과 외적 직업가치 요인 5문항으로 구성된 총 16문항을 구성하였다. 요인1과 요인2의 내적일관성신뢰도는 각각 .73과 .53으로 나타났다.

〈표 2〉 계열별, 성별, 학년별에 따른 진로태도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 안은 표준편차

구분	진로태도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인문계	3.44(.43)	3.20(.80)	3.29(.62)	3.17(.56)	3.77(.57)	3.78(.58)
남학생	3.36(.42)	3.11(.78)	3.16(.62)	3.18(.56)	3.60(.57)	3.73(.58)
1학년	3.44(.42)	3.16(.85)	3.23(.59)	3.25(.61)	3.67(.53)	3.88(.50)
2학년	3.34(.40)	3.00(.78)	3.14(.63)	3.11(.51)	3.71(.59)	3.76(.50)
3학년	3.25(.44)	3.17(.66)	3.10(.65)	3.16(.52)	3.37(.52)	3.45(.68)
여학생	3.52(.42)	3.29(.81)	3.40(.60)	3.18(.57)	3.91(.53)	3.83(.54)
1학년	3.57(.42)	3.32(.84)	3.44(.61)	3.16(.60)	4.03(.51)	3.88(.53)
2학년	3.48(.42)	3.17(.83)	3.34(.58)	3.15(.59)	3.90(.50)	3.83(.51)
3학년	3.51(.43)	3.39(.74)	3.42(.63)	3.25(.51)	3.73(.54)	3.74(.60)
F 값	37.31***	12.74***	38.27***	.001	78.52***	8.03**
실업계	3.32(.36)	2.97(.70)	3.19(.55)	3.06(.50)	3.70(.51)	3.67(.49)
남학생	3.32(.35)	3.03(.69)	3.12(.58)	3.11(.49)	3.58(.51)	3.76(.46)
1학년	3.31(.37)	3.00(.69)	3.10(.60)	3.16(.51)	3.52(.51)	3.78(.50)
2학년	3.33(.34)	3.06(.68)	3.13(.57)	3.08(.48)	3.62(.51)	3.76(.44)
3학년	2.97(.05)	2.30(.57)	2.50(.71)	3.07(.37)	3.94(.23)	3.00(.31)
여학생	3.32(.37)	2.93(.71)	3.24(.53)	3.03(.50)	3.78(.50)	3.61(.50)
1학년	3.30(.37)	2.84(.70)	3.24(.49)	3.07(.51)	3.77(.51)	3.62(.52)
2학년	3.30(.36)	2.89(.73)	3.27(.54)	2.92(.46)	3.80(.50)	3.66(.50)
3학년	3.34(.37)	3.06(.69)	3.22(.55)	3.09(.51)	3.77(.49)	3.54(.47)
F 값	.08	3.11*	12.43***	6.61*	35.38***	25.11***
전체 F값	50.13***	46.89***	13.51***	24.10***	6.81***	25.80***

* p<.05

** p<.01

*** p<.001

4. 내외통제성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내외통제성 측정도구는 Rotter(1966)가 개발한 내외통제성검사(Rotter's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Scale)를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차재호(1973)가 번안한 15문항으로 구성된 내외통제척도를 사용하였다. 정종진(1985)이 고교생 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외통제척도의 반분신뢰도는 .88, 김현옥(1989)이 중·고등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적일관성신뢰도 계수는 .67이고 반분신뢰도는 .92의 수준을 보였다.

결 과

1. 개인적 변인과 진로태도성숙 수준분석

태도의 성숙 정도를 비교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었다. 표 2에 제시된 F값은 각각의 계열별에 따라 인문계 내에서, 그리고 실업계 내에서의 남녀의 차이이며, 전체 F값은 전체응답자 2007명에 대한 계열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1) 성차이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정도

표 3에 의하면, 전체 진로태도 평균점수에서 여학생(M=3.41, SD=.41)이 남학생(M=3.

34, SD=.39)보다 높은 진로태도 점수를 보인다($t=4.02, p<.001$).

진로태도에 대한 하위 5개 영역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정성(여:M=3.10, SD=.78 대 남 : M=3.08, SD=.74), 목적성(여 : M=3.32, SD=.57 대 남 : M=3.14, SD=.61), 준비성(여 : M=3.84, SD=.52 대 남 : M=3.60, SD=.54)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성숙 점수를 보였다. 하지만, 목적성($t=6.70, p<.001$)과 준비성($t=10.35, p<.001$)만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정성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다. 한편, 독립성에서는 남학생(M=3.74, SD=.53)이 여학생(M=3.71, SD=.53)보다 높은 성숙점수를 보였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못했으며, 확신성에서는 남학생(M=3.14, SD=.53)이 여학생(M=3.10, SD=.54)보다 어느 정도 높은 성숙점수를 갖는 경향성을 보였다($t=-1.96, p=.051$).

따라서 진로태도성숙 정도에 대한 남녀 차이는 전체적으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세부적인 차원에서는 반드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성숙 정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부분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성숙 정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성별에 따른 진로태도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 안은 표준편차

구분	진로태도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여학생	3.41(.41)	3.10(.78)	3.32(.57)	3.10(.54)	3.84(.52)	3.71(.53)
남학생	3.34(.39)	3.08(.74)	3.14(.61)	3.14(.53)	3.60(.54)	3.74(.53)
t 값	3.02***	.82	6.70***	-1.96+	10.35***	-1.29

+ $p<.06$

*** $p<.001$

2) 계열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정도

계열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에서의 차이 여부를 검증하였다. <표 2>에 의하면, 인문계 학생(M=3.44, SD=.43)이 실업계 학생(M=3.32, SD=.36)보다 높은 진로태도 점수를 보이고 있다($F(1,2006)=50.13, p<.001$).

또한 진로태도의 하위영역인 결정성($F(1,2006)=46.89, p<.001$), 목적성($F(1,2006)=13.51, p<.001$), 확신성($F(1,2006)=24.10, p<.001$), 준비성($F(1,2006)=6.81, p<.01$),

독립성 차원($F(1,2006)=25.88, p<.001$) 모두에서 인문계 학생이 실업계 학생보다 높은 진로태도성숙 점수를 보이고 있다.

계열과 성별에 따른 진로태도 하위 요인의 성숙 점수와 이들 변인에 따라 우리 나라 고등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 정도가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남학생과 여학생을 인문계 학생과 실업계 학생으로 구분하여 성별과 계열별에 의해 진로태도성숙 점수가 어떻게 상호작용 하여 변하는지를 살펴본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었다.

<표 4> 성과 계열별에 따른 진로태도 점수의 상호작용 효과

	자유도	자승합	F	p 값
진로태도				
계열별	1	6.85	44.02	.001
성차이	1	2.92	18.74	.001
계열 * 성	1	3.44	22.14	.001
결정성				
계열별	1	22.44	39.57	.001
성차이	1	.66	1.16	ns
계열 * 성	1	9.68	17.07	.001
목적성				
계열별	1	5.03	14.79	.001
성차이	1	16.09	47.38	.001
계열 * 성	1	1.44	4.23	.040
확신성				
계열별	1	5.71	20.18	.001
성차이	1	.85	2.99	ns
계열 * 성	1	.86	3.03	ns
준비성				
계열별	1	2.56	9.22	.002
성차이	1	30.37	109.43	.000
계열 * 성	1	1.33	4.79	.029
독립성				
계열별	1	4.71	8.60	.001
성차이	1	.45	1.63	ns
계열 * 성	1	8.10	29.55	.001

전체 진로태도 평균점수에 대해서는 계열별 차이($F(91,2006)=5.56, p<.01$), 성차이($F(1,2006)=21.95, p<.001$)에 의한 주효과와 계열과 성의 상호작용($F(1,2006)=22.14,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전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그리고 실업계보다는 인문계 학생이 더 높은 진로태도성숙 점수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확일적으로 성별과 계열별에 따라 성숙도에서 차이를 보이기도는, 성과 계열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하위요인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임을 시사하고 있다.

3) 학년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정도

학년에 따라 진로태도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학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정도를 비교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었다.

우리 나라 고등학생의 학년에 따른 진로태도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체 진로태도 평균점수에서는 학년에 따라 태도점수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F(2,2005)=3.33, p<.05$),

그 차이가 어느 학년에서 나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한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학년에 따라 진로태도점수가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목적성 차원에서는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결정성 차원에서는 3학년이 가장 높았다. 한편, 확신성 차원에서는 1, 3학년이 동일한 수준의 태도점수를 보였으며, 준비성과 독립성 차원에서는 1,2학년이 3학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태도점수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학년에 따른 진로태도에서의 성숙수준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태도에 대한 성숙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이나 그 차이는 거의 없는 편이다. 결과적으로 학년에 따라 진로태도의 성숙수준에서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학년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진로에 대한 태도는 더욱 성숙된다고 보는 진로발달이론가들의 주장과는 다소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결과이다.

2. 심리적 변인과 진로태도성숙 수준 분석

〈표 5〉 학년에 따른 진로태도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 안은 표준편차

구분	진로태도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1학년	3.41(.41)	3.09(.80)	3.27(.58)	3.16(.56) ^a	3.77(.55) ^a	3.79(.52) ^a
2학년	3.37(.39)	3.04(.76) ^a	3.22(.58)	3.07(.52) ^b	3.75(.53) ^a	3.76(.49) ^a
3학년	3.37(.42)	3.19(.71) ^b	3.25(.62)	3.16(.51) ^a	3.65(.54) ^b	3.58(.58) ^b
F 값	3.33*	5.77**	1.19	6.66**	7.25***	26.39***

서로 다른 영문자는 집단간의 차이를 나타냄.

* $p<.05$

** $p<.01$

*** $p<.001$

1) 자아존중감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자아개념과 진로태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자아존중감 점수와 진로태도 점수와의 단순상관을 살펴보았으며, 또한 자아존중감 점수를 사분편차를 이용해 높은 자아감 집단(499명)과 낮은 자아감 집단(502명)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진로태도성숙 정도를 비교하였다.

두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전체 진로태도 평균점수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는 .41의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하

위 요인과의 상관은 .21-.52(결정성 .28, 목적성 .27, 확산성 .52, 준비성 .21, 독립성 .22)의 범위의 정적상관을 보였다. 특히, 이 중 자신이 선택한 진로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확산 정도를 나타내는 확산성 차원과 자아존중감과는 .52 정도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한편, 자아존중감 원점수의 사분편차를 이용하여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정도를 비교한 표 6의 결과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의 총점이 높은 집

〈표 6〉 자아존중감에 따른 진로태도성숙도에 대한 차이검증

() 안은 표준편차

구분	진로태도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자아존중감총점						
높은 집단	3.64(.40)	3.43(.80)	3.42(.60)	3.51(.51)	3.91(.52)	3.91(.52)
낮은 집단	3.20(.37)	2.84(.74)	3.13(.62)	2.80(.49)	3.63(.58)	3.63(.53)
t 값	18.07***	12.10***	7.54***	22.42***	8.18***	8.56***
신체적 자아						
높은 집단	3.56(.40)	3.31(.80)	3.33(.60)	3.41(.55)	3.85(.52)	3.86(.52)
낮은 집단	3.28(.40)	3.00(.77)	3.20(.60)	2.93(.49)	3.64(.58)	3.64(.55)
t 값	11.03***	6.27***	3.29**	14.50***	6.08***	6.58***
도덕적 자아						
높은 집단	3.56(.40)	3.32(.80)	3.38(.60)	3.35(.55)	3.87(.52)	3.88(.51)
낮은 집단	3.26(.39)	2.93(.75)	3.14(.64)	2.88(.52)	3.70(.57)	3.65(.55)
t 값	11.87***	7.87***	6.19***	13.71***	4.80***	6.87***
성격적 자아						
높은 집단	3.66(.40)	3.51(.77)	3.41(.61)	3.53(.50)	3.87(.51)	3.96(.51)
낮은 집단	3.17(.36)	2.73(.74)	3.24(.63)	2.75(.47)	3.64(.57)	3.64(.53)
t 값	19.37***	15.54***	6.49***	24.13***	6.30***	9.31***
가정적 자아						
높은 집단	3.57(.39)	3.30(.80)	3.40(.57)	3.37(.53)	3.90(.50)	3.87(.52)
낮은 집단	3.25(.40)	2.91(.76)	3.15(.62)	2.90(.53)	3.64(.59)	3.67(.56)
t 값	12.77***	8.05***	6.61***	13.94***	7.51***	5.72***
사회적 자아						
높은 집단	3.55(.42)	3.28(.81)	3.34(.60)	3.39(.54)	3.87(.53)	3.87(.54)
낮은 집단	3.28(.39)	2.99(.77)	3.21(.64)	2.91(.52)	3.62(.56)	3.68(.54)
t 값	10.25***	5.86***	3.33**	14.03***	6.37***	5.36***

** p<.01

*** p<.001

단이 자아존중감의 총점이 낮은 집단보다 전체 진로태도 평균점수와 다섯 가지의 하위영역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진로태도의 다섯 가지 하위영역 중 확신성차원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M=3.51, SD=.51)과 낮은 집단(M=2.80, SD=.48) 사이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t=22.43, p<.001). 이는 자아존중감과의 단순상관 결과와 함께, 자신에 대해 높은 긍정적 자아감을 가진 사람이 진로에 대한 태도에서도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 직업가치와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표 7에 의하면, 진로태도 점수와 직업가치와는 .34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진로태도의 하위 영역과는 .12-.38의 범위의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직업가치를 외적 가치지향적인 유형과 내적 가치지향적인 유형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에서의 진로태도점수를 비교하였다. 집

단구분의 기준은 총 16문항의 직업가치척도 점수의 평균 5.04와 표준편차 .66의 점수를 이용하여, 평균으로부터 1표준편차만큼 이탈하여 5.70 이상의 점수를 가진 293명을 내적 가치집단으로, 그리고 4.38 이하의 점수를 가진 329명을 외적 가치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표 8에 의하면, 내적 가치지향적인 사람(M=3.59, SD=.42)이 외적 가치 지향적인 사람(M=3.17, SD=.32)보다 높은 진로태도 점수를 보이고 있다(t=13.98, p<.001). 또한 진로태도의 다섯 가지 하위영역 모두에서 내적 가치지향적인 사람이 외적 가치지향적인 사람보다 높은 진로태도점수를 보이고 있다.

3) 내외통제성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통제유형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2007명의 내외통제척도의 점수를 사분편차를 이용하여 내적 통제성집단과 외적 통제성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내적 통제성집단은 평균점수가 4.00 이하인 하위 25% 집단 616명이며, 외적 통제

〈표 7〉 직업가치와 진로태도총점과의 단순상관계수

구분	진로태도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직업가치	.34	.16	.23	.12	.38	.32

〈표 8〉 직업가치와 유형에 따른 진로태도성숙도에 대한 차이검증

()안은 표준편차

직업가치유형	진로태도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내적가치지향성	3.59(.42)	3.29(.82)	3.45(.60)	3.26(.59)	3.99(.53)	3.99(.54)
외적가치지향성	3.17(.32)	2.92(.64)	3.01(.52)	3.16(.43)	3.39(.51)	3.47(.50)
t 값	13.98***	6.20***	9.75***	4.75***	14.31***	12.68***

*** p<.001

성 집단은 7.00 이상인 상위 25% 집단 759명이다. 내외 통제성유형에 따른 진로태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가 표 9에 제시되었다.

표 9에 의하면, 개인이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내적인 문제로 귀인하는 내적 통제성 집단(M=3.52, SD=.42)이 문제의 원인을 외적인 상황으로 돌리는 경향성을 가진 외적 통제성 집단(M=3.26, SD=.38)보다 진로태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t=11.84, p<.001$). 이와 같은 결과는 어떤 일에 대해 성공을 하던지 실패를 하던지간에 그 원인이 타인이나 상황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사람이 진로에 대한 태도가 더욱 성숙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3. 진로태도성숙과 개인적·심리적 변인의 관계분석

진로태도성숙에 심리적 변인과 개인적 변인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다섯 가지의 진로태도 구인의 차원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3개의 심리적 변인 — 자아존중감, 직업가치, 내외통제성 — 과 3개의 개인적 변인 — 성, 계열, 학년 — 등 6

개의 차원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10에 제시되었다.

전체 진로태도 평균점수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표 10에서 보는 것과 같이 4개의 변인들이 유의미하였다($F(4,219)=47.08, p<.0001$). 이들의 설명량은 약 46%였으며, 자아존중감, 직업가치, 내외통제성, 계열별의 순으로 예언치가 높았다.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직업을 갖는 이유를 자아개발, 성취감 등과 같은 내적인 가치에 치중할수록 그리고 내적 통제감을 가질수록 그리고 실업계 교과과정보다는 인문계 교과과정일수록 진로태도성숙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 진로태도 평균점수와 하위 다섯 가지의 구인 모두 자아존중감, 직업가치성향 그리고 내외통제성이 가장 많은 설명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내적인 직업가치 경향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내적 통제감을 보일수록 진로태도가 더욱 성숙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결정성 차원에서는 계열별 변인이, 그리고 독립성 차원에서는 학년 변인이 유의미한 예언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유일하게 성차이 여부는 어느 차원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설명

〈표 9〉 통제성 유형에 따른 진로태도성숙의 평균점수

() 안은 표준편차

직업가치유형	진로태도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내적통제유형	3.52(.42)	3.25(.79)	3.41(.58)	3.25(.55)	3.84(.50)	3.86(.51)
외적통제유형	3.26(.38)	2.95(.73)	3.11(.58)	3.01(.51)	3.63(.58)	3.62(.54)
t 값	11.84***	7.34***	9.56***	8.51***	7.09***	8.25***

*** $p<.001$

정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고등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 정도와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먼저, 심리적 변인과 진로태도성숙 정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발달이론가들에 의하면, 일반적인 자아개념이 직업적 자아개념으로 전환되어 진로태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Helbing, 1978).

따라서, 자신에 대한 자아감이 높은 사람이 궁극적으로 진로태도에 있어서 더욱 성숙

된 태도를 갖게 된다(Gati, Krausz, & Osipow, 1996; Taylor & Betz, 1983).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자아개념점사의 점수와 진로태도와는 .41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아개념이 높고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들의 진로태도성숙 정도를 평가한 결과에서도 자아개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직업적 성숙 정도를 보여, 이전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진로태도의 다섯 가지 하위영역 중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에서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확신성 차원에서 자아개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성숙 정도를 보였으며, 자아개념점

〈표 10〉 개인의 심리적 변인이 진로태도를 예언하는 정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R ²	예언변인	Beta	t	p
진로태도 F(4,219) = 47.06 p < .0001	.46	자아존중감	.34	5.77	.000
		직업가치	.33	5.62	.000
		내외통제성	-.19	-3.53	.001
결정성 차원 F(3,220) = 22.33 p < .0001	.23	계열	-.11	-2.25	.025
		자아존중감	.36	5.61	.000
		내외통제성	-.17	-2.86	.005
목적성 차원 F(2,221) = 33.94 p < .0001	.23	직업가치	.36	5.77	.000
		내외통제성	-.22	-3.42	.001
확신성 차원 F(2,221) = 55.94 p < .0001	.34	자아존중감	.45	7.62	.000
		내외통제성	-.22	-3.76	.000
준비성 차원 F(2,221) = 61.47 p < .0001	.36	직업가치	.49	8.05	.000
		자아존중감	-.22	2.91	.004
독립성 차원 F(4,219) = 22.55 p < .0001	.29	직업가치	.28	4.34	.000
		학년	-.20	-3.37	.001
		자아존중감	.14	2.16	.032
		내외통제성	-.13	-2.06	.041

사의 점수와 확신성 차원과는 .52의 정적 상관관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자신에 대해 높은 긍정적 자아감을 가진 사람이 진로선택에 대한 태도에서도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개인이 직업을 갖는 목적이 경제적 보상 등과 같은 외적 가치에 있는가 혹은 성취감, 대인관계 등과 같은 내적 가치에 있는가에 따라라도 진로태도의 성숙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직업가치와 진로태도와는 .34 정도의 정적상관을 보인 결과와 더불어 내적 가치집단과 외적 가치집단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직업의 가치를 내적인 가치에 들수록 더욱 성숙된 진로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결과에 대해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지 혹은 타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귀인을 하는지에 따라 진로태도의 성숙 정도가 달리 나타나는데, 본 연구에 의하면 어떤 일에 대해 성공을 하던지 실패를 하던지 간에 그 원인을 타인이나 상황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사람이 진로에 대한 태도가 더욱 성숙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얻은 진로태도와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직업 및 진로란 전생애 과정을 통해 삶의 의미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자아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발달적 관점에서 진로태도성숙이란

자신에 대한 긍정적 사고와 더불어 모든 일의 원인을 타인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귀인 시키는 책임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진로태도가 성숙되었다는 것은 일의 의미를 단순한 외적인 보상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 성취감을 얻고 그 성취감을 토대로 일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직업에 대한 내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내적 통제감을 가질수록 진로태도가 더욱 성숙되었다는 점이 이런 현상을 암시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개인적 변인과 진로태도성숙 정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로에 대한 태도성숙도는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장석민, 임두순, 송병민, 1991). 이러한 진로태도성숙도의 차이는 성별에 따라, 계열별에 따라, 그리고 학년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진로태도성숙 수준을 보인다(김현옥, 1989; 이기학, 1992; Fouad, 1988). 하지만, 이런 성차이를 보이는 연구의 대부분이 진로태도에 대한 전반적인 현상을 보았던 연구들로서, 진로태도를 하위구인으로 세분하게 되면 성차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진로태도의 하위 구인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태도를 세분화시켜 살펴보았을 때에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진로태도 요인을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의 다섯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였을 경우, 모든 차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진로태도성숙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목적성과 준비성 차원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진로태도성숙도를 보이지만, 확신성 차원과 독립성 차원에서는 그 반대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성숙도를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녀의 직업에 대한 태도와 진로선택시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한 이전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여성은 진로선택시 작업조건(Erez, Borochoy, & Mannheim, 1989)과 대인관계 및 이타성(Buchholz, 1978; Feather, 1984) 등을 더 중요시하는 반면에, 남성은 진로선택시 도구적인 측면(Gati, Givon, & Osipow, 1995) — 예를 들어 안정성, 승진기회, 경제적 보상 — 에 더 중요성을 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목적성 차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성숙 정도를 보이는 것은 동일한 내용이라든가 남성과 여성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Gati, Givon과 Osipow (1995)는 직업을 통해 타인을 돕는다는 부분에서 남성과 여성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하였다. 여성의 경우에는 타인을 도움으로써 개인적 성장을 하거나 성취감을 높이기 위한 것인 반면에, 남성의 경우에는 도움행동을 통해 타인을 통제하거나 외적 보상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 나라 고등학생의 경우, 여학생들은 직업 및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자신에게 적절하고 자신의 욕구 및 능력에 맞는 직업보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게 보는 직업을 선호하는 직업 선택 경향성을 갖고 있다. 또한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고등학교 시절에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준비를 더욱 착실하게 해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에, 남학생들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생각과 그 직업에 대한 준비

정도는 다소 미흡하나, 막연하게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잘할 수 있다는 자아감이 여학생들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직업 선택에 있어서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생계유지의 수단으로서의 직업에 대해 남성이 여성보다 더욱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차이와 더불어 계열별에 따라서 진로태도성숙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인문계 학생이 실업계 학생보다 높은 진로태도성숙도를 보인다. 하지만, 이런 차이를 남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인문계 여학생은 인문계 남학생보다 진로태도가 더욱 성숙되어 있지만, 실업계 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진로태도 평균점수에서 남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업계 학생의 경우에 남녀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목적성과 준비성 차원에서는 실업계 여학생이 실업계 남학생에 비해 높은 진로태도 성숙 정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결정성 차원, 확신성 차원, 그리고 독립성 차원에서는 실업계 남학생이 실업계 여학생보다 높은 성숙 정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인문계 학생의 경우에는 이전연구의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모든 차원에서 높은 성숙 정도를 보이지만, 실업계의 경우에는 반드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성숙 정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로태도에 대한 하위 구인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임을 암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년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도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저학년 학생이 고

학년 학생보다 진로태도성숙 점수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가 매우 크게 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현상은 고학년이 될수록 대학입학을 위한 준비에 치중한 나머지, 다른 직업적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 나라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년에 따라 진로태도성숙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고등학생 내에서의 학년차이를 발견할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 고등학교의 경우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생의 학년이 변한다고 해서 진로에 대한 태도가 뚜렷이 향상될 만한 계기가 없는 탓으로 볼 수 있다(김충기, 1995). 따라서, 진로발달가들이 주장하는 학년 및 연령의 증가에 따른 진로태도성숙도의 향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고등학생들 내에서의 학년 비교보다는 중학교 학생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령 변화에서의 진로태도의 향상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학년별에 따른 진로태도에서의 성숙도를 설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학년별의 차이를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학년별 분포가 편포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성별, 계열별, 그리고 학년별로 집단을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나,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의 응답자가 제외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학년별 결과를 사용할 때에는 위와 같은 조사대상자의 편포 경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현옥(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건국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기학(1992). 개인적 특성이 직업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기학(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자아존중감, 직업가치, 내외통제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기학, 한종철(1997).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연구 I. 한국심리학회 '97연차학술대회, 523-540.
- 이순목(1995). SPSS를 사용한 공통요인분석의 문제점. 교육평가연구, 8(1), 5-33.
- 장석민, 임두순, 송병민(1991).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교육개발원.
- 정순이(1989). 자아개념과 학업성취도에 따른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원식(1968). 자아개념검사: 검사실시요강. 서울:코리안 테스트 센터.
- 정원식(1994). 자아개념검사: 검사법요강. 서울:코리안 테스트 센터.
- 정종진(1985). 대학생의 인생목적과 내외통제성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충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정채기(1988). 자아개념, 자아정체감 및 내·외통제성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차재호(1973). 내·외통제척도 작성. 연구노우트(Research Notes).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제2권(19), 263-271.

- BenShem, I., & Avi-Itzhak, T. E.(1991). On work values and career choice in freshmen students: The case of helping vs. other profess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9(3), 369- 379.
- Buchholz, R. A.(1978). An empirical study of contemporary beliefs about work in American societ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3, 219-227. 255-259.
- Crites, J. O.(1978b). *Manual for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for adults*. Monterey, CA: CBT/McGraw-Hill.
- Erez, M., Borochoy, O., & Mannheim, B. (1989). Work values of youth: Effects of sex or sex role typ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4, 350-366.
- Fitts, W. H.(1965). *Manual Tennessee Self Concept Scale*. Nashville, Tenn.:Counselors Recordings and Tests.
- Fitzgerald, L. F., & Betz, N. E.(1994). Career development in cultural context: The role of gender, race, class, and sexual orientation. In M. L. Savickas & R. W. Lent(Eds.), *Convergence in career development theories*(pp.103-118).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Fouad, N. A.(1988). The construct of career maturity in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2, 49-59.
- Fouad, N. A., & Keeley, T. J.(1992). Relationship between attitudinal and behavioral aspects of career maturity.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0, 257-271.
- Gade, E. M., & Peterson, G.(1977). Intrinsic and extrinsic work values and the vocational maturity of vocationaltechnical students.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26, 125-130.
- Gati, I., Givon M., & Osipow, S.H.(1995). Gender differences in career decision making: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pre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2), 204-216.
- Gati, I., Krausz, M., & Osipow, S. H.(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4), 510-526.
- Ginzberg, E., Ginsburg, S. W., Axelrad, S., & Herma, J. R.(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arré, R., & Lamb, R.(1983). *The encyclopedic dictionary of psychology*.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 Helbing, H.(1978). Vocational maturity and selfconcepts. ERIC document reproducing service. No. ED 166 579.
- Jordaan, J. P., & Heyde, M. B.(1979). *Vocational maturity during the high school years*. New York: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Larson, J. H., Butler, M., Wilson, S., Medora, N., & Allgood, S.(1994). The effects of gender on career decision problems in young adul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September/October), 79-84.
- Leso, J. F., & Neimeyer, G. J.(1991). Role of gender and construct type in vocational complexity and choice of academic major. *Journal of Counseling*

- Psychology, 38, 182-188.
- Locan, J. J., Boss, M. W., & Parsula, P. J. (1982). A study of vocational maturity during adolescence and locus of contro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0, 331-342.
- London, M., & Greller, M. M. (1991). Demographic trends and vocational behavior: A twenty year retrospective and agenda for the 1990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8, 125-164.
- Lopez, P. G., & Andrews, S. (1987). Career indecision: A family systems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5(6), 304-308.
- Luzzo, D. A. (1995). Gender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perceived barriers in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January/February).
- Manuele, C. A. (1983). The development of a measure to assess vocational maturity in adults with delaye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3, 45-63.
- Oppenheimer, E. A. (1966). The relationship between certain self constructs and occupational pre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3, 191-197.
- Osipow, S. H., Carney, C. G., & Barak, A. (1976). A scale of educational/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 233-243.
- Parr, J., & Neimeyer, G. J. (1994). Effects of gender, construct type, occupational information, and career relevance on vocational differenti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1), 27-33.
- Pavlak, M. F. (1981). Student Characteristics as Predictors of Vocational Attitude Maturity and Job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Phyllis Post-Kammer. (1987). Intrinsic and extrinsic work values and career maturity of 9th- and 11th-grade boys and girl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5, 420-423.
- Ralph, J. R. (1986). An investigation of self-concept, locus of control and age as correlates of career maturity among graduat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uburn University.
- Rojewski, J. W. (1994). Predicting career maturity attitudes in rural economically disadvantaged youth.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1(1), 49-61.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
- Srebalus, D. J., Marinelli, R. P., & Messing, J. K. (1982). *Career development: Concepts and procedures*. Monterey, CA: Brooks/Cole.
- Storey, W. D. (1979). A guide for career development inquiry. In R. Harré, & R. Lamb. (1983). *The encyclopedic dictionary of psychology*.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Row.
- Super, D. E. (1983). Assessment in career guidance: Toward truly developmental counseling.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May, 555-562.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 Van Maanen, J., & Schein, E. H.(1977). Career development. In R. Harré, & R. Lamb.(1983). *The encyclopedic dictionary of psychology*.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 Wagman, M.(1965). Sex and age differences in occupational values.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43, 258-262.
- Wallas, R. T., & Gulkus, S. P.(1974). Reinforcers, values, and vocational maturity in adult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Chicago.(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89 168).
- Watson, M. B., & Van Aarde, J. A. (1986). Attitudinal career maturity of South African colored high school pupil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9, 7-16.
- Zunker, V. G.(1986). *Career counseling: Applied concepts of life planning*(2nd ed.). Monterey, CA:Brooks/Col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turity of Career Attitude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sychological Variables of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Ki-Hak Lee Jong-Chul Han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he degree of career attitude maturity according to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sychological variables of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The subjects for this study consisted of 2007 students from 7 high schools in the metropolitan area of Seoul. We measur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tructs of career attitude maturity—decisiveness, goal orientation, confidence, preparation, and independence—and personal characteristics—sex differences, curricular, and the grade level—and psychological variables—self esteem, work value, and locus of control—. The results of the degree of career attitude maturity in this study was different to previous studies. Generally, female students had a high scores in career attitude maturity than male, but the results of this study seems that female tend to score higher on the construct of goal orientation and preparation and that male tend to score higher on the construct of confidence and independence.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tend to score higher than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There was no differences in the grade level of high schoolers. As a results of relationship between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psychological variables, the students in high self-esteem tend to score higher than low self-esteem, and intrinsic work value to score higher than extrinsic, and internal locus of control to score higher than external locus of control.